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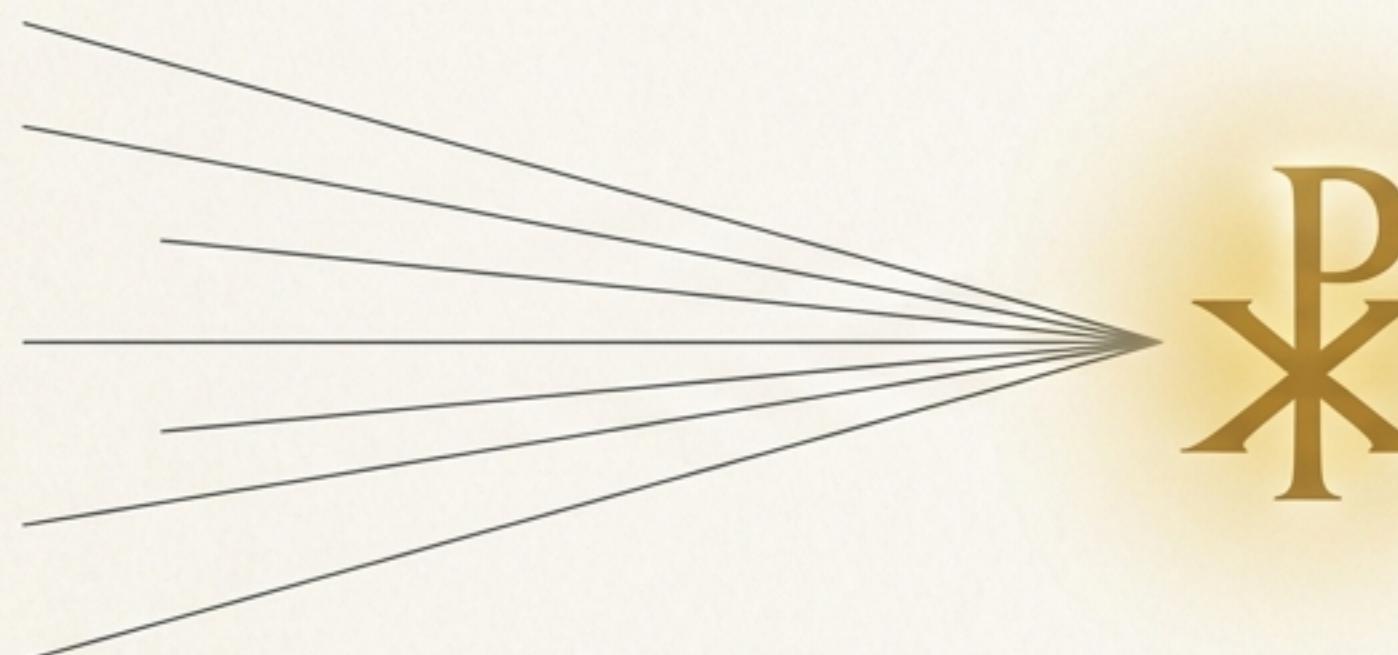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사업상의 기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그 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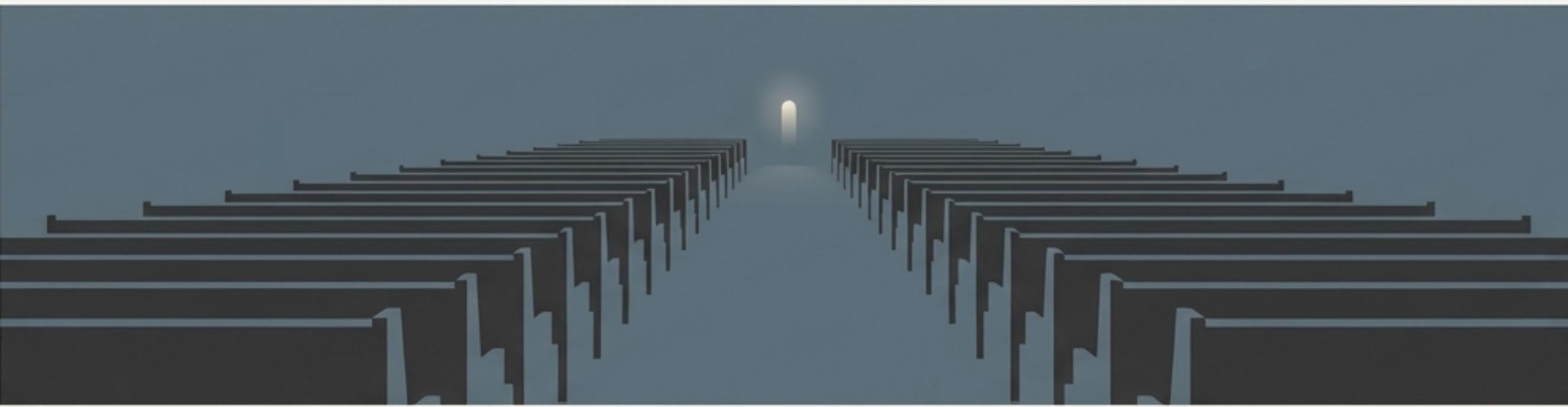
- 천지 창조의 기적.
-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비밀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핵심이자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과 치유,
모든 문제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날라리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젊은 자매의 고백입니다.

‘저도 예수 믿어요. 근데 전 날라리예요.

어렸을 때 저를 인도한 우리 엄마도… 내가 볼 땐 날라리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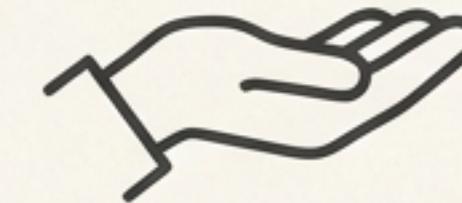
모든 문제는 두 가지 믿음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믿음 (My Faith)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믿습니다!’를 외치며 스스로의 의지
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



예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고 행사하신
그 믿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자기 믿음’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40일 금식기도 후, ‘예수님도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으려다 파도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믿습니다’는 예수님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가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구원과 영생, 기적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증거 1: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신 것:
100% 예수의 믿음

베드로가 바다 위에 선 것: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믿음에
참여한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 마리아와 하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instrument)’에 불과했습니다.
- 그들의 역할: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떠다 주는 것.



비밀을 맡은 자는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비밀’을 아는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물론 마리아도 그 결과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증거 2: 오병이어, 모든 계획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5-6)



예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예수님은 처음부터 5천 명을 먹일 계획과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앉히고,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논리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그 말씀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The Perfect Example: The Virgin Mary

- 천사의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 마리아의 응답: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믿음) 안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좋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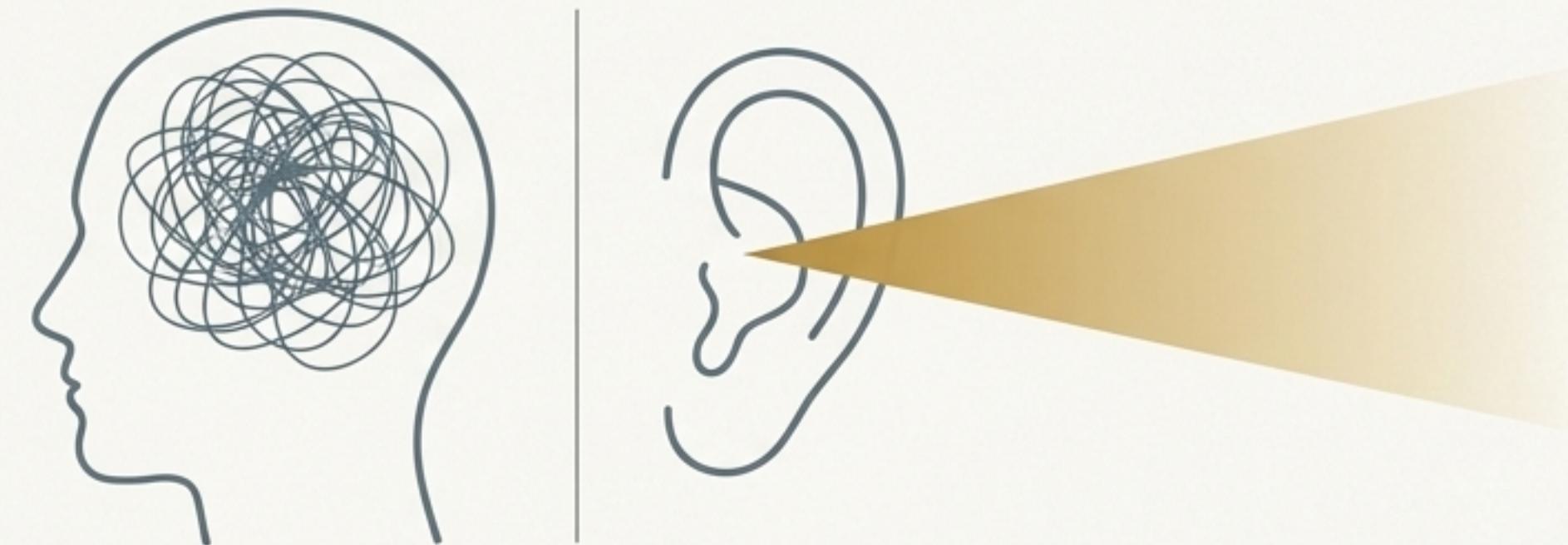
오직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당신의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순종의 길: 인간적 생각을 넘어서는 것



Pastor's Testimony: ‘하체가 마비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주님은 ‘안찰 기도’를 하라 명하셨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가 앞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젊은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가?’ 저는 그 기도를 거부했습니다.’

God's Rebuke: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의사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으로 내 딸을 판단했다. 나는 너를 도구로 써서 영광을 나타내려 했는데, 네가 막았다.’

The Lesson: 하나님의 도구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길

1.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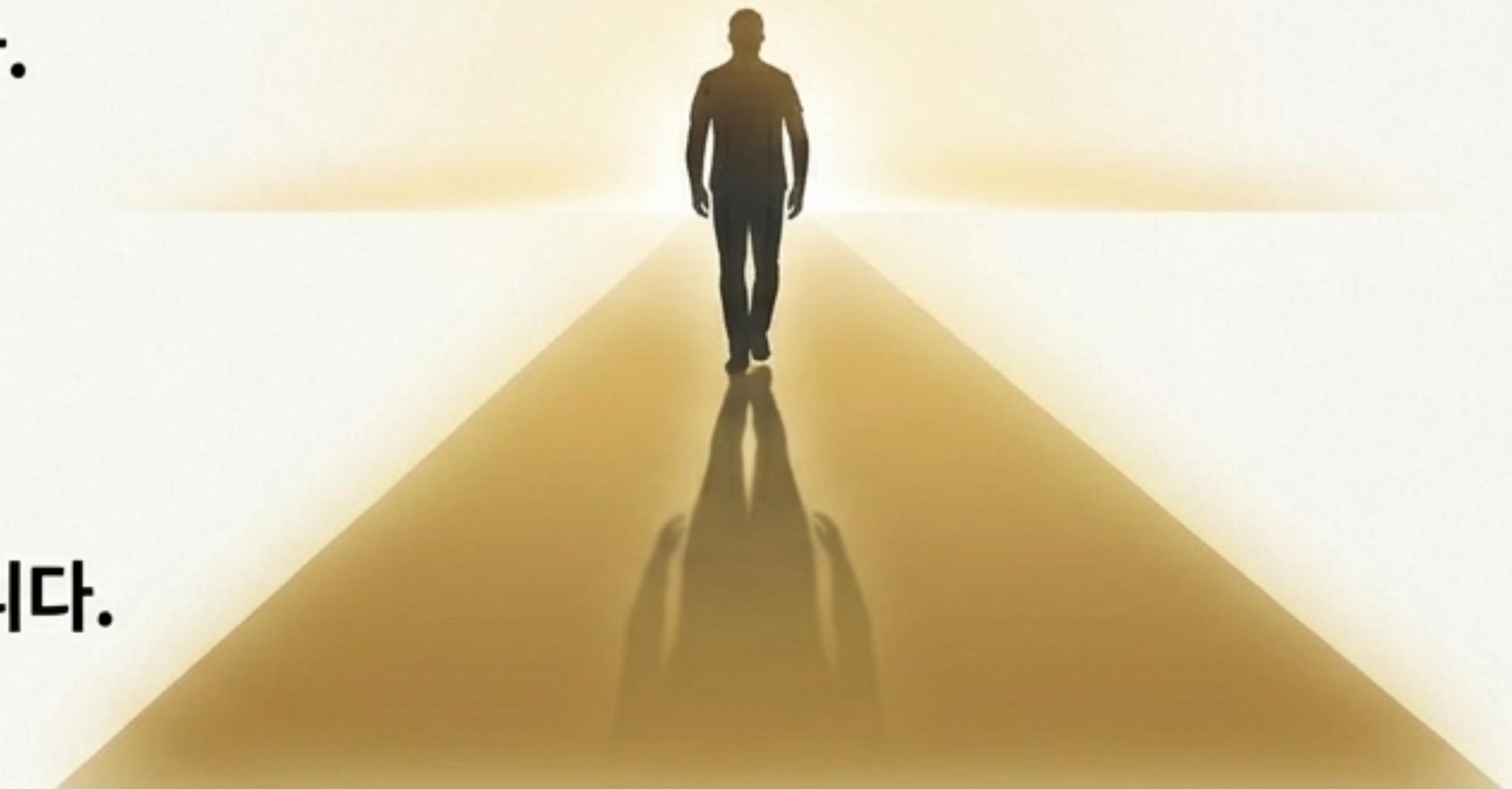
(세상에겐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능력입니다.)

**2. 내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말씀) 위에
나를 던집니다.**

(결과를 몰라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3.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